

看護哲學의 概念과 機能

金 香 美
(春海看護專門大學)

目 次

- I. 序 言
- II. 看護哲學의 概念
- III. 看護哲學의 機能
 - 1. 思辨的 機能
 - 2. 規範的 機能
 - 3. 分析的 機能
 - 4. 統合的 機能
- IV. 看護哲學의 課題
 - 1. 概念形成의 問題
 - 2. 目的의 問題
 - 3. 看護思想家研究의 問題
- V. 結 言

I. 序 言

看護의 업무분야가 細分化되고 그 學問的 理論들이 專門化되어 가는 추세와 병행하여 看護界는 오늘날 새로운 挑戰에 직면하고 있다. 그 하나는 看護學이 지금까지 醫學의 從屬學問의인 位置에서 탈피하지 못하였거나 적어도 잠정적으로나마 그러한 認識下에 있었음을 반성하고 조속히 여기에서 벗어나 獨立科學으로서의 妥當性을 立證할 수 있는 根據를 具有해야 한다는 要求이고, 다른 하나는 看護業務의 細分화와 看護理論의 專門化로 인하여 그 歸結로써 필연적으로 야기된 專門領域別 理論들 사이의 또는 理論과 實務間의 갭까지 마찰이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進歩화된 功用的 統制할 수 있는 規範과 原理가 提示되어야 한다는 要求이다. 結論의으로 말해서 이 두 가지 要求의 충족은 看護哲學이 해결해야 할 課題이다.

人間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科學들이 모두가 그러하듯 看護學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科學인 이상 看護學 建반을 統制하고 설명할 수 있는 規範 내지 '原理들을 가진 思想體系(thought systems)'로서의

看護哲學이 定立되 있어야 한다. 이 哲學的 基礎의 구축 없이는 看護學을 獨立學問으로 科學化하기가 어렵게 된다.

看護學이 지금까지 그 專門性을 自負할 수 있을 정도로 靚目할만한 발전을 거듭해온 것은 사실이나 주로 臨床分野의 研究에만 偏重해온 결과 相對的으로 看護哲學分野의 연구에는 소홀히 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看護哲學의 이러한 貧困現狀을 의식하여 看護學의 獨立科學의 성격을 再吟味하고 看護哲學의 근본적 사명을 再覺醒하기 위하여 본 고찰에서 看護哲學의 概念과 機能을 규명하는 동시에 이들이 요청하는 諸課題를 提示하고자 한다.

II. 看護哲學의 概念

看護教育에 献身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哲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看護哲學」이 어떠한 학문인지를 알고자 할 것이다. 어휘의 구심으로 보아 看護學과 관련이 있는 哲學입에는 踴躍이 없겠으나 경작 「看護哲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대답하기가 극히 어렵고 또한 論爭의이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看護란 무엇이며 哲學이란 무엇인가?'라는 두개의 概念부터 명료하게 定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看護의 定義와 哲學의 定義가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려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일반적인 同意를 얻을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만약 이르렀다고 가정하더라도 看護哲學이 단순하게 看護와 哲學을 기계적으로 연결시킨 概念이 아닌 한 定義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教育哲學者 Newsome이 教育哲學의 概念을 定義하기 위해 세 가지의 接近方法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그의 方法은 看護哲學의 概念을 定義하기 위한 接近方法으로도 적합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그의 提案 가운데

서 ‘教育’이라는 말을 때는 대신에 ‘看護’라는 用語를 代置시켜 看護哲學의 接近方法을 提示하자면 다음과 같다.

- 1) 看護觀으로서의 看護哲學
- 2) 看護에 대한 應用哲學으로서의 看護哲學
- 3) 看護의 一般의인 理論으로서의 哲學¹⁾

첫번째의 접근방법은 이를테면, ‘A는 ○○의 看護哲學을 가지고 있다.’와 같이 看護에 관한 어떤 확고한 見解 또는 思想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見解나 思想에 대해 同意하고 지지하는 信念體系이다. 가령 F. Nightingale이 “看護란 환자에게 자연적인 치유가 힘있게 작용하도록 환경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해 주는 것이다.”²⁾라고 한 見解라든지 E.J. Taylor가 “看護란 개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생활의 요구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른 치료와 예방적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³⁾라고 주장한 見解들은 모두 看護觀으로서의 看護哲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견해들에 대하여 同意하고 확고한 信念으로 지지한다면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看護哲學은 看護思想家 자신의 信念體系가 곧 看護哲學이 되는 까닭에 반드시 전문적인 哲學的 知識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人間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世界觀이나 人生觀·價値觀·職業觀 등을 가진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이러한 觀이 하나의 信念體系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 觀은 곧 그 사람의 生活哲學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 信念의 內容이 看護에 관계된 것이라면 이 信念은 看護觀으로서의 看護哲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哲學者의 위대한 思想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사람의 心意에 信念化되지 못한다면 그 思想은 無意味한 것이 되고 만다. 信念化된 觀은 說得力이 있기 때문에 Nightingale은 비롯한 看護思想家들의 看護觀은 살아있는 看護哲學으로서 看護學徒들이 자신의 看護觀을 定立하는데 큰 影響력을 지니게 된다.

두번째의 接近方法은 일반철학을 참다운 의미의 철학으로 인정하고 이것의 原理와 機能을 응용하여 看護學의 諸理論과 現象들을 哲學的으로 思考하고 說明했을 경우에만 看護哲學이라 命名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특수 철학은 일반철학을 응용한 철

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테면 教育哲學이라는 지 法哲學·社會哲學·宗教哲學 등과 같은 특수철학은 어느 것이나 일반철학의 원리들을 응용하여 각 전문영역의 現象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看護哲學 역시 이 두번째의 接近方法을 거절하고서는 看護哲學으로서의 定立이 어렵게 된다.

哲學者들 가운데는 應用哲學을 배척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Newsome 역시 이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應用哲學으로서의 看護哲學은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看護哲學이 應用學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看護哲學者는 반은 哲學者이고 반은 看護學者이다. 그의 주된 기능은 철학이 그에게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看護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그는 獨著的인 哲學者가 아니고 철학에 빚진 債務者이다. 그는 철학에게서 概念·概念的 道具·方法 등을 빌린 자이다.”⁴⁾

Newsome의 이러한 주장은 극히 배타적인 자세로서 一般哲學과 特殊哲學과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의도이며, 전문영역의 문제는 첫번째 내지는 세번째의 接近方法을 통하여 해결하자는 견해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을 일면 의미있는 것으로 수긍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모든 분야의 科學들이 綜合科學의 성격을 띠지 않은 것이 없는만큼 看護學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論理에서 應用哲學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일반철학에는 傳統的 哲學과 分析的 哲學이라는 쌍벽이 있는데 둘 중에서 어느쪽을 應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前者를 택할 경우에는 既存哲學의 體系를 분석하고 그것들이 看護에 주는 示唆點을 밝히는 동시에 看護의 本質·目的·規範·價値觀 등을 추론해내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될 것이다. 반면에 後者를 택할 경우에는 看護學에서 사용되고 있는 言語들의 명료한 意味를 밝히고 命題에 대한 論理的이고 方法論的인 理解를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입장은 자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傳統的 哲學은 看護學에 示唆하는 바가 있고 새로운 理論의 創造란 도와주지만 概念들을 에메모호하

1) G.L. Newsome,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 Educational Philosopher*, in C.J. Lucas (ed), *What is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69), p.162.
 2) 田山草外, 看護哲學·倫理(壽文社, 1983), p.36.
 3) *Ibid.*, pp.36~37.
 4) G.L. Newsome, *op. cit.*, p.164.

게 편리한대로 사용함으로써 非論理的이고 非科學의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理性'·'眞善美'·'사랑' 등과 같은 개념들의 의미가 쓰는 學者나 문맥의 先後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에 分析的 哲學은 既存理論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概念의 의미를 명료히 하고 命題들을 論理에 따라 科學化하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言語分析만을 일부로서 하는 까닭에 독자적인 世界觀이나 理論이 없고 새로운 理論의 創造를 어렵게 한다. 오히려 기존 思想이나 命題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부함으로써 하나의 명언어를 산산조각으로 갈라놓는 경향이 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의 接近方法에 따라 看護哲學의 定義를 내려보자. 먼저 傳統的 哲學은 應用한다면 「看護哲學은 看護關係의 문제나 形象에 대해 哲學의 思考를 하는 것」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 定義는 看護哲學者가 哲學의 活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哲學의 活動이란 反省의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思考·批判하고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哲學의 活動을 토대로 한 看護哲學의 機能을 論議하겠다. 다음으로 分析的 哲學을 應用한다면 「看護哲學은 看護關係의 言語를 명료화하는 活動」이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렇게 相異한 두개의 定義를 假定하고 보면 看護哲學은 어느 쪽을 應用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특일의 것이라기 보다는 두 가지 哲學 모두가 長短點을 가진 原理라는 점을 감안하여 短點은 최소화하고 長點은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兩者를 均衡적으로 應用하는 것이 看護哲學이 나아가야 할 方向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의 接近方法은 看護學의 모든 一般理論이 곧 看護哲學이라는 해석이다. 이 方法을 따를 경우 看護哲學의 진술을 위해 外部에서 따르되 哲學을 應用해줄 필요가 없이 看護學 자체의 內部에서 哲學을 發見하게 된다. 따라서 이 接近方法의 看護哲學은 看護學이 규정하는 看護原理·看護觀·看護倫理·看護目的·看護價值觀 등 일체의 看護理論이 모두 看護哲學으로 간주되게 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모든 학문을 哲學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철학의 범위나 의미가 매우 포괄적이다. 오늘날 수백종으로 分化된 單位科學들도 과거에는 未分化된 하나의 哲學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세 번째의 接近方法에서 看護哲學의 概念을 이끌어 낸다면 「看護哲學은 看護學의

一般理論을 총칭한 것」이라고 定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Newsome의 接近方法을 통하여 看護哲學의 概念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選擇과 統攝 중에서 兩者擇一의 문제가 남게 된다. 筆者의 견해로는 統攝쪽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위의 세 가지 接近方法은 分離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觀은 信念이라 한다면 應用은 形式이고 理論은 內容이라 할 수 있다. 독자적인 理論이 없이 形式만 있거나, 理論은 있되 哲學의인 形式이 없다면 수레의 한쪽 바퀴에 불과할 뿐이고 확고한 信念으로서의 觀이 없다면 즉은 哲學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看護哲學의 발전을 위해서는 看護觀의 확립과 看護理論의 科學化作業 및 일반철학의 응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看護哲學의 機能

法哲學, 教育哲學 등 다른 특수철학과 마찬가지로 看護哲學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하나는 看護哲學을 看護學 一般과 同一視하는 견해로서 이것은 Newsome에 있어서 세 번째의 接近方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看護現象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여러 가지 看護分科學, 이를테면 看護哲學·看護倫理學·看護社會學·看護行政學 등과 같은 分科看護學 중에서 哲學領域 하나만을 看護哲學으로 간주하려는 견해이다.

위의 두 가지 견해에서 前者는 고대의 그리스哲學과 같이 傳統的이며 包括的인 동시에 非體系의인 경향을 띠고 있다. 반면에 後者의 看護哲學은 前者의 특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進步的이며 동시에 機能的 構造와 性格을 중시한다. 본 고찰에서는 후자의 構造의 見解를 기초로 진자의 성격까지 포함시켜 看護哲學의 機能을 論議해 보기로 한다. “哲學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立場 또는 機能을 갖는다. 즉 思辨的·規範的·分析的 哲學의 立場 또는 機能이다.”⁵⁾

1. 思辨的 機能

일반철학에서 思辨的機能(speculative function)을 빼 놓을 수 없듯이 간호철학도 看護現象에 대한 사변적인 機能을 제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思辨的’이란 말은 몇 가지 意味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5) G.F. Kneller,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1), p. 1.

우선 思辨的이란 의미는 思索·思考·思惟·思辨·反省의 요소를 내포한다. 따라서 看護와 관련된 諸問題나 理論 및 看護現象에 대하여 思索·思考·思辨·思惟하고 反省하는 요소를 看護哲學의 思辨的機能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思辨的인 의미의 요소들은 무엇보다 먼저 驚異(verwundern)·懷疑(zweifel)·危險 또는 喪失(verlorenheit)·矛盾(widerspruch) 등의 문제상황을 전제로 해서 나타난다.⁶⁾

Aristoteles는 그의 저서 形而上學에서 “今日에 있어서나 시초에 있어서 인간이 哲學하기 시작한 것은 驚異로 말미암아서였다. 사람들은 처음에 신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에 ‘놀라움’을 느끼고 그리하여 점차 보다 더 광대한 것으로 나아가 明星辰의 운행이라든지 우주의 발생 등에 대하여 의혹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⁷⁾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哲學이 驚異와 疑問(懷疑)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古來로 共通해온 바이지만 그렇다던 看護에 있어서 이 驚異는 어떤 것인가?

Nightingale이 看護員으로 繼任했던 野戰病院에서 동일한 罪戾의 동일한 치료와 施術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看護를 받은 부상병이 받지 않은 다른 부상병보다 회복이 빨랐다는 사실은 분명히 그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을 놀라게 한 하나의 驚異였다. 이 경이로운 사실에 대하여 疑問을 가지고 그 理由를 思索하고 反省한 결과 看護의 效力과 必要性이 입증된 것이고 오늘날의 看護學이나 看護哲學이 존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경이로운 사실에 대한 思辨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危險은 哲學에 끊임없는 營養을 준다. 각종의 재난과 기아와 전염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洪水와 가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의 科學이 발전되었고, 饑饉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農學과 食品工學이 발전되었으며 疾病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醫學과 藥學과 看護學의 발전을 가져왔다. 인간에게 가해지는 갖가지 위협은 새로운 지혜를 낳게 되었고 그 지혜가 價值的으로 다시 反省하는 계기와 합쳐서 哲學을 낳게 되었으며, 看護哲學도 이러한 過程 속에서 성립된 것이다. 오늘날 看護學의 專門化로 인하여 未久에 예상되는 理論과 實務, 分科看護學간의 乘離나 마찰 등은 오늘날의 看護哲學에 던져지는 하나의 挑戰이요 危險

임에 틀림없다.

看護哲學이 思辨的機能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위와 같은 근거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思辨은 思惟하는 對象과 主題를 종합하고 통합하려는 기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간호철학은 看護學一般이라는 論據가 성립되는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看護哲學은 전체적인 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看護哲學은 看護學一般을 本質的, 根本的, 全體的으로 思索하고 反省하는 학문이다. 이 말을 환원하자면 看護哲學의으로 規定되고 評價되고 判斷되는 結論은 결코 部分的이거나 方便的이 아니라 全面的이고 本質的이며 根本的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마치 內科醫가 위장병 환자를 診斷함에 있어 자신의 內科的所見외에 관련된 다른 科目 醫師들의 所見과 諸檢査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診斷을 내리는 경우와 같다.

哲學에 있어 思辨的機能을 강조한 것이 思辨哲學이다. Kneller는 “思辨哲學은 모든 것을 體系의으로 思考코자 하며 科學者들처럼 부분적 사실에 대한 탐구에 만족하지 않고 부분적 사실을 전체로서 理解코자 한다. ……그러므로 思辨哲學은 부분의 事實이나 경험보다는 모든 知識이나 경험에 적용되는 全體性이나 體系性에 대한 탐구이다. 즉 思辨哲學은 思考나 經驗의 전체성에 있어서의 統一性을 발견코자 한다.”⁸⁾라고 기술한 바 있다. 그의 이 표현은 철학에서 사변적 기능이 수행하는 役割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말이다.

2. 規範的機能

哲學의 사변적 기능안에 綜合과 統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規範化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規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事象의 종합이나 統一이 기대할 수 없는 때문이다. 規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當爲的인 要求(Sollensforderung)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規範은 當爲的인 要求의 표현이거나 內容 또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哲學의 規範的機能(prescriptive function)이란 그러므로 人間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가치로운 人間行動이나 特性(qualities)에 대한 判斷基準을 탐색하여 제시하고 왜 인간행동이나 特性이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6) 朴俊澤, 哲學, (博英社, 1973), pp. 20~24. 참조.

7) Aristoteles, 形而上學(제 1권), 참조.

8) G.F. Kneller. *op. cit.*, p. 2.

當爲性을 밝히는 機能이라 할 수 있다.

철학이 이러한 規範的 機能을 중심적 활동으로 간주하거나 강조하면 규범철학이 된다. “규범철학은 價値判斷, 行動判斷, 審美的 감상 등에 대한 基準을 담구하고자 한다. 規範哲學은 善과 惡, 正義와 不義, 美와 醜에 대한 담구로서 그러한 것이 事物自體에 內在하는 것인지 人間心意에 반영인지 밝히고자 한다.”⁹⁾ Kneller는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看護哲學으로 응용한다면 간호철학의 규범적 기능은 價値判斷, 行動判斷, 審美的 감상 등에 대한 看護學的 價値基準을 규명하고자 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看護는 인간의 精神的, 身體的 健康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人間’, ‘生命’, ‘健康’을 최고의 價値로 규정한다. 가치 가운데서도 인간이 최고의 目的價値임은 어떤 분야의 학문이거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일이지만 ‘生命’의 문제에 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厭世主義哲學은 제외하고는 人間生命의 價値에 대하여 부정하는 입장은 극히 드물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生命에 대한 개념”¹⁰⁾이다. 이를테면 醫學界에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植物人間의 生命도 保護대 할 가치와 의부가 있는 생명인가 하는 문제이다. 看護哲學은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介說된 基準을 마련해야 한다.

看護는 또한 人間과 그 生命의 價値와 존엄성을 전제할 활동이기 때문에 看護行爲에는 엄격한 규칙의 준수가 요구된다. ‘나이팅게일 전시’라든지 ‘간호윤리강령’ 등은 看護行爲의 規範이며 當爲의인 요구의 記述인 것이다. 그리고 看護인이 그 업무들 수행함에 있어서 看護規範의 제정자는 看護인이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대하는 요구가 있다. 行爲規範(Verhaltensnorm)이라 한다면 후자는 課業的 規範(Aufgabennorm)이라 할 수 있다. 看護哲學은 이와 같이 看護에 있어서의 價値判斷과 行動判斷의 基準을 담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基準(Standard)이란 看護行爲

(nursing conduct)의 원천으로서 기준을 의미한다. 즉 일체의 간호행위가 이 기준에서 비롯되고 또 판단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때의 기준은 法則과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基準은 法則化 내지 規則化 된다는 뜻이며 권위를 지닌 법칙이나 철칙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普遍性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看護哲學에서 제정된 規範은 價値志向의 性格을 띠게 되는데 이때 어떤 것을 價値있는 것으로 보며 무엇을 가치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원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는 共認的인 妥當性을 기점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공인적 수준에서 價値를 규정하고 그 위에 정립된 規範이라던 고다 높은 철학적 권위를 가진 것이다.

3. 分析的 機能

오늘날 英語文化圈에 있어서 철학의 연구분야는 분석철학 일편도라 한 정도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論理的 經驗論자들은 “철학의 기능은 전적으로 論理的 分析이다.”¹¹⁾라고 단언하기까지 한다. 分析哲學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Ludwig Wittgenstein도 “철학의 목적은 思想의 논리적 명료화에 있다.”¹²⁾ 주장했듯이 分析哲學者들은 言語의 分析을 통하여 개념의 애매모호성을 배제하고 의미론 명료화(clarification) 하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상언어에는 애매(ambiguous)하고 모호(vaguc)한 말들은 물론 보습, 혼란, 불합리가 도사리고 있으며, 哲學과 科學 속에서도 두의미한 命題와 陳述들이 무비판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애매하다는 말은 하나의 概念이 하나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비해 모호하다는 말은 ‘대머리’(baldness), ‘精神病者’ 등과 같이 개념들이 정도가 相異함에 따르는 性質을 가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애매모호한 語彙를 통상적 관념이나 습관에 따라 論者의 視의대로 시용한다면 思想의 전달에 혼란이 오고 진술된 命題들은 무용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分析哲學者들은 哲學한

9) *Ibid.*, p. 2.

10) 夫婦중 한 편이 죽기 전에는 이혼을 엄격히 불허하는 寡公奭가 근저에는 죽음은 生物學的 죽음, 倫理的 죽음, 精神的 죽음, 社會的 죽음 등 네 개 차원의 죽음으로 구분하고 비록 부부중 한 편이 生物學的으로 살아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개의 차원중 하나에 해당하면 죽음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허락하려 한다. 이혼을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가톨릭에서도 이 주장이 일리 있는 것으로 긍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生命의 개념 문제에 대하여는 간호학쪽에서도 신중한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神學展望編輯部 編, 神學展望, 제22호, 大連神學大學長室編輯部, 1973 참조.

11) G.F. Kneller, *op. cit.*, p. 98.

12) L. Wittgenstein,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New York; Humanities Press, 1955), p. 77.

다는 것은 言語를 分析하는 것이다(To philosophize is to analyze language)라고 주장함으로써 言語의 명료화 작업만을 강조하고 철학의 機能 가운데 思辨의인 活動이나 規範의인 역할을 거의 무시하는 입장이다.

현재 分析哲學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John Hospers는 오늘날 說得의인 定義에 의해 많은 말들이 오염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가운데에는 ‘哲學’이란 말도 끼어 있다고 경고했다. 설득적인 定義로서의 ‘哲學’은 철학자들이 서로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哲學’은 이미 사람들이 情緒의으로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철학활동의 내용이 서로 다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 말을 즐겨 사용하고 고수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설득적인 定義를 소개하고 있다.

① 哲學은 概念分析이다.

② 哲學은 모든 經驗의 體系의인 해석이다.¹³⁾

이들 정의는 그 내용이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하나는 哲學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거나 아니면 정의를 포기하든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Hospers는 정의되어지는 哲學의 몇 가지 특징들을 소개했다. ① 철학은 觀念과 概念들의 명료화와 주요 개념들의 보다 명료한 사용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무슨 의미이냐” 하는 형식(‘what do you mean’ type)의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② 철학은 최고의 일반성을 가진 문제를 다룬다. 예컨대 마음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哲學은 萬學의 綜合이다. ③ 철학은 지지받지 못하는 부수적 의견, 실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리와 논증에 의해서 수립된다. 權威나 直觀이나 信仰에 의해서가 아닌 추리에 의해 변호될 때 命題는 哲學의이 된다. ④ 철학은 궁극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철학은 “어떻게 아느냐”는 형식(“How do you know” type)의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다른 모든 테마의 근저에 있는 기초와 前提들을 탐구한다.¹⁴⁾

Hospers는 위에서와 같은 조건들을 공평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이미 또 하나의 ‘철학’의 설득적인 정의를 내린 것이 되고 말았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저서에서 “비관적(분석적)”이며 “사변적”인 두 철학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分析的인 활동과 思辨의인 활동의 순서를 분명히 했다.

Hospers는 확고한 概念的 기반없이 고도로 추상적인 문제론 다룬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意味問題(meaning-questions)를 논의하고 난 다음에 知識問題(Knowledge-questions)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¹⁵⁾

위에서 分析哲學의 기본입장은 고찰하였거니와 이러한 주장의 분석철학이 오늘날 세계적인 작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論理的 分析과 實證, 그리고 언어의 개념분식을 통하여 진술하려는 내용을 명료히 하고 科學化하려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다. 看護學의 理論들 가운데도 醫學에서 無批判的으로 빌려온 用語는 물론 애매하거나 모호한 概念인데도 통상적인 관념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도 허다할 것이다. 看護哲學은 아직 개척의 단계에 있고 기존의 이론들에 대해서 분석철학이 지적하는 오류나 비논리적인 요소가 없는지 분석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看護哲學을 개척하려는 현재의 時點에서 다른 어떤 부류의 철학보다도 分析哲學의 접근 방식의 응용이 看護學을 科學化하고 哲學的 토대를 정립함에 있어 가장 호응성이 많을 것으로 展望된다.

4. 統合의 機能

상충한 哲學의 세 가지 기능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思辨의 機能안에 規範的 機能들이 포함되고 分析的 機能도 作用하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의 기능만으로는 철학적 활동이 불가능하며,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분적 활동이 될 뿐이다. 다만 어느 기능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思辨哲學·規範哲學·分析哲學 등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각 기능들은 상호간에 關聯을 가짐으로써만이 자기의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되고 나아가 哲學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哲學의 統合的 機能(integrational function)이란 이와 같이 자기의 기능들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相互關聯을 지워주고 조절해 주는 기능이다.

철학에 있어서 統合的 機能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분석 철학에서도 긍정하고 있다. 論理的 實證主義와 뿌리를 같이 하는 分析哲學의 주된 관심은 言語分析이었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철학적 판단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言語分析은 그 자체가 어렵고 수고로운 것이어서

13) John Hospers,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Analysis*, (London; RKP, 1967), pp. 54~55.

14) *Ibid.*, pp. 55~56.

15) *Ibid.*, p. 56.

그것을 넘어서기가 어려웠다. 분석철학자 A. Edel은 분석의 방법의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분석적 방법안에 경험적, 규범적, 태락적인 것을 통합하자고 제의했다.¹⁶⁾ 철학적 분석이 곧 철학이라는 견해가 가져오는 해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분석에다 경험적 규범적 요소를 부가(adding)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며, 분석의 활동 하나만으로는 수태의 한쪽 바퀴와 같은 절름발이 철학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Edel의 이 우려는 최근 상당히 해결되고 있다. 분석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철학의 개념은 言語分析만 있지 않고 인간생활에 가치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임무도 있음을 수긍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석이 철학의 주요한 활동이긴 하지만 유일한 활동은 아님을 체휼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안개(언어의 애매성과 모호성)를 제거하는 사람이면서 새로운地平으로 인간을 안내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이다. 과거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言語의 분명한 사용때문이 아니라 存在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思考를 통하여 위대한 성취를 가져왔다. 지나친 言語分析은 사람들에게 발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최후의 안식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철학자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다른 말로 사용하지 않고 철학이라는 말로 계속 사용하고자 한다면 看護哲學에 있어서도 Socrates의 활동이 언제나 상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철학적 활동으로서 分析만 한 것이 아니며 思辨의이고 規範의인 活動도 보여주었다. Platon의 초기 四部作이 전해주는 Socrates의 모습은 철학의 전반적인 활동은 모두 보여주고 있다. 看護哲學이 어떤 부류의 철학을 지지하고 또 응응하는 하나의 기능에만 편중해서는 안되며 이들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자 나아가 이들 각 기능들을 통합하고 조결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진전되어야 한다.

看護哲學은 또한 統合的 機能을 수행함에 있어 看護哲學 자체의 세 機能의 統合만이 아니라 分科看護學의 統合活動도 並行해서 해야 한다. 看護哲學이 이 활동에 두렵하다면 細分化와 惠門化 뒤에 오는 割裂分科學問의 구획화과 乖離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전문영역별 학자들간에 극단본이 발생한 경우 이른 조정할 능력이 없어 看護學을 기형으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 상호학 建반을 통합 통제해야 할

간호철학 그 자체마저 또 다른 하나의 分科學으로 군림하는 마찰을 유발시키거나 구획화를 가중시킨다면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看護哲學의 統合的 機能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각 기능들간의 절충, 偏見의 배제는 물론 융통성과 柔軟性的의 堅持 등 몇 가지 條件의 충족이 요구된다.

IV. 看護哲學의 課題

看護哲學은 아직 계획의 단계에 있으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고찰했던 간호철학의 네 가지 機能을 토대로 몇 가지 급선무적인 課題만을 提示하고자 한다.

1. 概念形成의 問題

간호철학에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문제는 ‘看護哲學’이란 개념의 구성을 어떤 수준에서 성립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간호철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看護學一般에 대한 入門的·概論的·序說的·通論的 意味水準에서 논의되고 다른 하나는 看護科學의 입장에서 논의이다. 전자의 경우는 看護學入門·看護學概論·看護學原論 등의 이름으로 쓰이고, 후자의 경우는 惠門科學的·形而上學的·哲學的 의미로서 간호학에 응용되는 철학으로서의 看護哲學의 수준이다. 간호철학은 후자의 의미에 더 가까우므로 여기에서도 후자의 意味水準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간호철학을 후자의 의미수준에서 논의할 경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精神科學의 수준에서 논의되는 概念形成上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특히 철학적 표현의 개념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그 機能의 多樣性에서 오는 意味限界의 模範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기에 한 가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分析의 方法의 응용이 有効하리라고 본다.

Wolfgang Brezinka도 철학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가운데는 전문용어일수록 그 어휘 자체가 多義的이고 曖昧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① 言語의 領域,

② 概念이나 判斷의 領域, ③ 現實의 領域 등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을 요약하

16) A. Edel, *Analytic Philosophy of Education at the Crossroads*, In James F. Doyle (ed.), *Educational Judgements*, (London; RKP, 1973), p. 234.

면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言語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나 文章이다.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듣거나 보는 사람은 그것에 의하여 事象을 생각하게 되고 價例에 의하여 그것을 빚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지구가 동쪽으로 돌고 있는 때도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말에 대해 아무런 의심없이 그대로 믿는 경우라든지, 못생긴 얼굴 때문에 탈렌트가 된 사람이 있는데도 “탈렌트처럼 잘났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등이다.

둘째, 概念과 判斷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言語나 文章이 의미하는 것 또는 그것들에 의하여 의미되는 것들이다. 즉 어떤 말의 의미나, 문장의 의미내용 내지 意義內容이다. 가령 “醫癡人”이라는 말이 의사, 간호원,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원 등으로 개념이 구성되는 것과 같다. 또한 判斷은 개념에 의해서 思考된 諸對象이나 諸屬性, 諸關係들에 대해서 어떤 事態를 관련지음으로서 성립한다. 한편 단단이나 命題가 관계하는 것을 “鞏固”라고 부르며 하나의 개념이나 판단은 事實이 올바른 문장으로 기술된 것을 말한다.

세째, 現實의 영역이란 「實在」 「世界」 또는 「存在하는 바」로서 표현된다.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事物」 「事件」 「現象」 「事象」 「客體」 「實體」 「對象」 등이다. 이들에게는 갖가지 屬性이 있으며 그 속성들은 판단되어 있다. 현실과학은 이 현실의 일정한 부분적 영역 내지 일부분에 대한 탐구와 관련하고 있으며 이들 諸命題는 「現實命題」인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를 고려할 때 간호철학에서 과학적 概念形成의 과제는 곧 「看護哲學」 자체의 개념정립은 물론 간호학 일반에서 사용하는 개념의 내용을 의미적으로 엄격하고 명료하게 규정하여 진술하는 작업이다. 개념의 명료화 작업이 증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學問을 科學化하는 선결조건이 되며 어떤 對象이나 事實에 대해 진술된 개념의 합당성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개의 개념은 관련하는 개념의 하나의 體系 안에서 비모소 명백히 규정된다. 개념의 내용은 內容이 관련되는 대상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에 의거하고 있다. 그래서 개념의 내용은 임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결과로부터 나오는 假說의 一般化와 같이 관찰을 통하여 검증된 事實의 命題의 경험적 결과를 그 내용으로 삼

고 있는 것이다.

現代哲學의 시선이 分析哲學에 집중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看護學界에서도 이에 대한 關心이 키지고 있다. 그 하나의 實例로서 최근에는 看護라는 용어부터가 잘못 命名된 개념이라는 反省이 그것이다. 오늘날 Nursing이라는 말이 내포한 개념에는 健康人을 대상으로 하는 健康管理 및 질병의 豫防, 그리고 患者를 대상으로 하는 看護處置 등 異質의인 두 活動의 意味가 들어 있다. 그런데 「看護」라는 용어는 전자가 배제되고 후자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둘의 意味를 같이 表現해 줄 수 있는 「看護」라는 용어로 改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예는 看護學에 있어서 하나의 단편적인 實例에 불과하지만 看護學이 보다 정밀한 科學임을 갖출 필요가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傳統的 權威나 慣習에 의해 常用하던 일반 간호학의 전문용어나 개념에 대해 적어도 단편적은 분석적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課題의 해결은 간호철학이 담당해야 할 임무이다. 여기에는 分析哲學의 접근방법이 증혁적 도구가 되겠지만 이 方法만이 能幹가 아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言語의 개념분석에 치중하다 보면 分析을 위한 분석이 되거나 새로운 用語의 多發로 言語公害의 현상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目的의 問題

看護에 있어서 目的의 문제는 간호활동 전체를 통괄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看護의 목적은 바로 그 간호의 價値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은 意識의입을 의미하며,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국한된다. 만약 의식없이 하는 행위에 가치를 부가하는 수가 있다면 그것은 오행이나 우연적일 따름이다. 모든 인간적 행위에 價値評價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행위를 목적적이라 한다. 그래서 目的에 관한 논의는 看護哲學의 논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課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田山草 등은 “看護의 目的을 설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간호에서 실현해야 할 價値體制 혹은 價値基準을 진술하는 일이므로 가치의 설정 그 자체는 哲學의 課題임에 틀림없다.”¹⁸⁾고 기술하고 있다.

널리 통용되고 있는 ‘看護의 일반적인, 目的으로는

17) W. Brezinka, *Probleme der Begriffsbildung in der Erziehungswissenschaft*, 1974. 참조

18) 田山草 外, 前掲書, p. 55.

R.N. Schlotfeldt의 “모든 사람의 健康을 증진하는 일”¹⁹⁾ 및 M.E. Rogers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최적의 건강상태를 성취하도록 助力하는 것”²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목적에 나타난 내용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의 건강이다. 즉 모든 사람의 건강이 간호에서 실현해야 할 價値인 것이다. 그런데 이 목적안에는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

첫째, 看護에서 추구하려는 궁극의 價値가 健康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갈망하는 가치는 그 종류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健康을 일차적 가치로 삼고 있다. 健康을 價値로 판단한 데에는 그 건강을 소유할 主體인 人間이 가치로운 존재임을 전제할 때문이다. 둘째, 看護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점이다.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는 人種이나 身分,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 敵軍과 我軍, 植物人間과 死刑囚 등 모든 차별을 떠나서 인간이면 누구나 예외없이 해당된다. 여기에서도 인간이면 누구나 價値로운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근거에서 모든 사람을 가치로운 존재로 판단하느냐 하는 哲學의 물음이 요구된다. 이 물음의 대답을 看護哲學이 해야 한다. 이는 看護學의 人間觀의 문제이다. 이 人間觀의 명확한 규명없이 간호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부상당한 敵軍의 치료여부든지 植物人間에게서 산소호흡기 제거여부 등 현실적인 난문제에 직면했을 때 행위와 판단의 기준이 애매하게 된다.

목적의 진술과 병행하여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는 간호의 具體의 目標이다. 國際看護協議會에서 채택한 看護論綱領에 의하면 看護의 구체적 목표로서 ① 건강증진, ② 질병예방, ③ 건강회복, ④ 고통경감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앞의 두 목표는 주로 건강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③과 ④는 환자란 대상으로 한 목표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③과 ④의 경우 이들 두 목표는 서로 相衡될 경우가 있다. 즉 苦痛을 輕減시키는 방법에는 건강회복을 지연시키거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양쪽의 목표가 상충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目標의 진술에 이러한 애매모호성이 개입될수록 그 權威와 설득력이 줄어든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目的과 目標의 진술은 명확한 價値判斷은 물론 그 확고한 기준

에 의해서 분명하게 진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의 목적과 목표의 진술에 관한 문제는 看護哲學의 重要한 課題중 하나라 하겠다.

3. 看護思想家研究의 問題

序文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간호학계에서의 研究動向이나 관심은 주로 臨床分野에 치중해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看護理論이나 看護思想 등에 대한 哲學的 考察에는 등한시 해왔음을 뜻한다. 간호철학의 정립이 시급하고 그 요구가 절실한 현실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看護思想家의 研究이다. 그 이유는 간호철학이 일반철학의 응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철학을 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看護學一般의 理論 정립과 看護思想家들의 諸思想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한다.

Newsome의 接近方法에서와 같이 看護哲學의 定立에는 應用哲學 보다도 看護觀으로서의 간호철학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哲學은 觀念的인 것만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자체적 觀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철학의 응용은 알맹이 없는 걸치장과 다를 바 없다. 나이팅게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간호사상가들이 있었고 이들은 우리에게 풍부한 看護觀과 산 經驗들을 제공해 주는 寶庫들이다. 看護哲學定立의 成敗는 이 보고에서 얼마나 많은 眞珠를 가려내어 體系化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간호철학이 해야 할 과제에는 간호철학의 內容問題와 方法의 問題 등이 있으나 본 고찰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 課題들만을 우선 제시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다.

V. 結 言

본 고찰에서는 간호철학이란 무엇이며, 그 주된 活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看護가 人間을 대상으로 하여 健康을 목적으로 하는 價値志向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갖가지 判斷의 문제들에 대해 合理的인 철학적 思考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論議한 內容들은 어디까지나 看護哲學에 接近해 보려는 하나

19) R.N. Schlotfeldt, *Can We Bring Order Out of the Chaos of Nursing Education!* (in American Journal of Nursing, January, 1976), p. 105.

20) M.E. Rogers, *Doctoral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Forum, 1966), 5, 11.

의 試圖에 불과할 따름이고 看護哲學이 실제의 간호행위에서 제 기능을 만족히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定立되기까지는 충분한 기초연구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찰은 看護哲學의 定立을 위해 요구되는 제반 기초연구의 의욕을 고취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되려는데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이 기초연구의 분야는 대충 「看護哲學의 課題」에서 제시한 것들의 기본적인 문제들이라고 사료된다.

參 考 文 獻

朴俊澤, 哲學, 서울, 博英社, 1973.
 神學展望編輯部 編, 神學展望, 제22호, 光州, 大建神學大學展望編輯, 1973.
 田山草 外, 看護哲學·倫理, 서울, 壽文社, 1983.
 Aristoteles, 形而上學, 제1권.
 Brezinka W., *Probleme der Begriffsbildung in der Erziehungswissenschaft*, 1974.
 Edel A., *Analytic Philosophy of Education at*

the Crossroads”, In James F. Doyle (ed.), *Educational Judgements*, London; RKP. 1973.
 Hospers J., *Introduction to Philosophical Analysis*, London; RKP, 1967.
 Kneller G.F.,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1.
 Newsome G.L.,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 Educational Philosopher”*, In C.J. Lucas (ed.), *What is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69.
 Rogers M.E., *“Doctoral Education in Nursing”*, *Nursing Forum*, 1966.
 Schlotfeldt R.N., *“Can We Bring Order Out of the Chaos of Nursing Education?”*, *In American Journal of Nursing*, January, 1976.
 Wittgenstein L.,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New York; Humanities Press, 1955.

The Functions and Problems of Philosophy of Nursing.

Kim, Hyang Mee

(Choonhae Junior Nursing College)

1. To the question, "What is Philosophy of nursing?" Two different groups will answer in two different ways. The answer may be given from the viewpoints either of traditional philosophy or of analytic philosophy. The former defines the philosophy of nursing as "the philosophical thinking of all the problems or phenomena of nursing". But the latter gives the following definition: "It is the clarification of all the languages related to nursing." There may be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concepts of philosophy of nursing.
 - a. Approach from the nursing itself
 - b. Approach to an applied philosophy to nursing.
 - c. Approach to the general nursing theories.
2. The natural next question may be: "What is the philosophy of nursing is all about?". As its functions, the following four points may be noteworthy.
 - a. Speculative function: This provides the room for introspecting and retrospecting the essentials and the wholesomeness of the general nursing.
 - b. Prescriptive function: This is the philosophical function to study human activities or qualities and to present the standard of judgements of them and finally to provide answers to the peculiarities of human activities.
 - c. Analytic function: The basic attitude of analytic philosopher is "to philosophize is to analyze the language". Therefore what the analytic function in nursing practices and theories is all about is to clarify those languages used in nursing.
 - d. Integral function: This is to integrate and synthesize the aforesaid three functions.
3. Since the philosophy of nursing as the branch of study is in its beginning stage, there are too many things to be explained and studied. The most urgent of them are:
 - a. concept formation
 - b. statement of purpose
 - c. those problems to be dealt with by the theorists of nursing.